

1 / National Anthem (S. Korea) (2019) | Choi, Kichang 최기창

Paint on rusty steel plate, 90x120cm x 2 panels

2 / Provisional Patriotism (2019) | Roh, Sean 노세환

Acrylic cutting, wires, screws, variable dimensions

3 / Roadshow Movies (2019)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Pigment-based inkjet print, 120x40cm

4 / Afterwardsness (2019) | Joe, EunJae 조은재

Pigment-based inkjet print, 120x40cm

5 / Shadows of the Hero (2019) | Lee, Changwon 이창원

Tea leaves, wooden panel, 600x280cm

6 / Why is Shame Crumbly like a Plastic Bag (2019) | Noh, Suntag 노순택

Archival inkjet pigment print, handwriting, variable dimensions

7 / The Broken Melody for Lost Names (2019) | Hong, Buhm 홍범

Miniature brick, musicbox movement, film, wood, 23x28x23cm

8 / The Plants of Anarchist (2019) | Won, Seoung-won 원성원

Colored pencil drawing on paper, 200x120cm

9 / Ordinary Nations: United States of Vela Siu (2017 ~ on-going) | Park, Hyemin 박혜민

Mixed media, variable dimensions, 2017 (on-going)

10 / Project by numbers: From Shanghai to Chongqing (2019) | Moon, Hyungmin 문형민

Database, interactive installation, variable dimensions

11 / Nae-ap (2015) | Kim, Ingeun 김인근

HD / B&W, Single channel video, 2 channel sound, 18:34, English, Korean Subtitle

2층 2nd floor

17 / Icon_Kim Jwa Jin (2011) | Lee, Dongjae 이동재

Acrylic, resin object on canvas, 100x100cm

Icon_Ahn Jung Gyun (2014) | Lee, Dongjae 이동재

Acrylic, resin object on canvas, 100x100cm

12 / w, 3dw_series | kdk 김도균

w.pgotrok_cq_ydy, Archival pigment print, 51x40cm, 2019
w.pgotrok_cq_cdo, Archival pigment print, 51x40cm, 2019
w.pgotrok_cq_crs, Archival pigment print, 51x40cm, 2019
w.pgotrok_cq_sccr, Archival pigment print, 51x40cm, 2019
w.pgotrok_cq_kk, Archival pigment print, 51x40cm, 2019
23h10m_w.pgotrok_cq_ydy, PLA 3D printing filament, 20x20x20cm, 2019
20h32m_w.pgotrok_cq_cdo, PLA 3D printing filament, 20x20x20cm, 2019
20h26m_w.pgotrok_cq_crs, PLA 3D printing filament, 20x20x20cm, 2019
20h22m_w.pgotrok_cq_sccr, PLA 3D printing filament, 20x20x20cm, 2019
21h20m_w.pgotrok_cq_kk, PLA 3D printing filament, 20x20x20cm, 2019

13 / A Nameless Monument (2019) | Kim, Siha 김시하

Stainless steel, clothes, led red light, mixed. variable dimensions

14 / Icon series | Lee, Dongjae 이동재

Icon_Oh Gwang Shim, Acrylic, crystal on canvas, 41x32cm 2019
Icon_Jung Jung Hwa, Acrylic, crystal on canvas, 41x32cm 2019
Icon_Gwon Ki Ok, Acrylic, crystal on canvas, 41x32cm 2019
Icon_Bahk Cho Wol, Acrylic, crystal on canvas, 41x32cm 2019
Icon_Dong Poong Shin, Acrylic, crystal on canvas, 41x32cm 2019
Icon_Kim Maria, Acrylic, crystal on canvas, 41x32cm 2019
Icon_Hong Bum Do, Acrylic, crystal on canvas, 41x32cm 2019
Icon_Kim Won Bong, Acrylic, crystal on canvas, 41x32cm 2019
Icon_Kim Gu, Acrylic, crystal on canvas, 41x32cm 2019
Icon_Han Yong Un, Acrylic, crystal on canvas, 41x32cm 2018

15 / Film(Roadshow) (2019) | Park, Inseong 박인성

Film(Roadshow01) Scangraphy, double digital C-print on archival matte paper, 33x49cm
Film(Roadshow02) Scangraphy, double digital C-print on archival matte paper, 33x49cm
Film(Roadshow03) Scangraphy, double digital C-print on archival matte paper, 33x49cm
Film(Roadshow04) Scangraphy, double digital C-print on archival matte paper, 33x49cm
Film(Roadshow05) Scangraphy, double digital C-print on archival matte paper, 33x49cm

16 / Provisional Patriotism (2019) | Roh, Sean 노세환

5 Digital prints, 53x73cm, Mono edition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 기념 특별전 ROADSHOW 2019 :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기간 2019. 11. 02 - 12. 21

개막식 2019. 11. 02 / 15:30

장소 주상하이한국문화원 3층
漕溪北路396号汇智大厦裙楼3楼

참가자 (기획자&작가)

김도균 김시하 김인근 노순택 노세환 로빈K
문형민 박인성 박혜민 서천의 손혜인 신보슬
원성원 이동재 이승아 이창원 조은재 조익준
최기창 최수영 최윤석 홍 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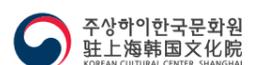
주최 · 주관



후원



上海市 徐家汇 漕溪北路 396号 汇智大厦 裙楼 2楼, 3楼靠
徐家汇地铁站1、9、11号出口, 上海体育馆站4、8号出口
021 · 5108 · 3533 | weibo.com/shkc0712 | 微信 skocenter
s.kocenter.cn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획전시가 만들어졌고, 무수히 많은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으며, 그동안 조명 받지 못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소개되었다. 하지만 그 많은 행사에서 현대예술의 자리는 잘 보이지 않았다.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면 볼수록 역사에 무지한 스스로를 만나게 되었을 뿐이고,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계 종사자로서의 자리를 찾기 힘들었다.

물론 예술은 예술만의 역할이 있다. 그렇게 예술이 현대에서 목소리를 내는 과정은 종종 예술이 예술계 안에 갇혀 있는 듯 보이고, 현실과 역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특히 동시대성에 반영하는 '현대미술'이 과거를 급급하고 언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무지함에 대한 구차한 변명일 수 있으리라. 그러나 진부한 이야기이겠지만, 과거 없이 현재가 가능하지 않으며, 현재 없는 미래 또한 없다. 그렇다면 독립운동가들의 100년 후를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100년전을 살고 있던 그들을 만나야 했다.

그렇게 <ROADSHOW 2019 : 상하이에서 충칭까지>가 시작되었다. 20여명의 기획자와 작가들은 2019년 3월1일 독립문에 모여 발대식을 가졌고, 상하이, 난징, 항저우, 자싱, 충칭, 치장, 창사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 중국을 여행하였다. 중국 여행 사이사이에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쫓아 한국에서는 마곡사(공주), 윤봉길 기념관(양재), 독립기념관(천안), 이등녕 생가(천안), 김구기념관(효창공원) 등 임시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곳들을 방문했다.

참여한 작가들은 '백범일지'를 읽으며 마곡사를 걸었고, 정정화의 '장강일기'를 따라 지금도 유유히 흐르는 흙빛의 장강(양쯔강)을 함께 보았다. 그 과정은 지난 8월15일 토탈미술관에서 아카이브 형의 전시로 풀어 내었다. 이후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들은 기존의 역사를 바탕으로 기록하는 전시나 아카이브 형의 전시에서 벗어나, <ROADSHOW 2019 : 상하이에서 충칭까지>를 통해 보고 느꼈던 것들을 작가 고유의 시각언어로 풀어내는 작품들과 함께 임시정부의 여정을 관객들과 나누고자 한다.



1 / National Anthem (S. Korea (2019) | Choi, Kichang 최기창

연인 사이에 주고 받는 상투적인 사랑의 고백처럼,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애장되는 유행가나 국가, 국가나 찬송가 등에는 애착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나 정의(definition), 애도나 연민 혹은 적대성을 나타내는 가사들로 가득하다. 나라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맹세의 가사를 절판에 새겨 부식되고 삭아 흘러내리는 모습을 드러내는 이번 작업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특이 없이, 온전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끝없는 기원을 보여준다.

2 / Provisional Patriotism (2019) | Roh, Sean 노세환

평소 애국심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작은 조각이라도 마주하면, 의식하지 못하며 살았던 애국심을 가슴속에서 느낀다고 한다. 그런 애국심이 어린 시절부터 주입되었던 교육으로부터 오는 감정인지, 아니면 낯선 타지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고마움이 부지불식간에 표출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임시정부의 이동경로를 따라가면서 젊은 나이에 (심지어 어린 나이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독립을 향한 길을 걸었던 독립운동가들을 생각하면 고마움과 함께 연민이 들기도 하여 마음이 복잡했다.

<임시적 애국심>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프린트 시리즈는 상하이에서 시작하여 충칭까지의 길을 걸으며, 가는 곳마다 크고 작은 돌들을 주위 사진을 찍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위치와 방향을 모는지 위에 그려 본 작업이다. 당시 간절하게 바라지만 명확하지 않았을 독립의 길, 내일을 기억할 수 없는 인생을 조금이나마 다시 떠올려보았다. 프린트와 함께 전시된 모빌은 다양한 오브제들이 각각의 궤적을 만들어 선화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상황과 독립운동의 상황이 유사하다는 생각에서 제작하였다. 개인과 국가, 그리고 그 주변 것들이 편편적으로 엮여 있으면서 갖게 되는 긴장감은 모빌을 구성하는 오브제들의 무게와 균형, 궤도로 시각화 했다.

3 / Roadshow Movies (2019)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4 / Afterwardsness (2019) | Joe, EunJae 조은재

사후작용이란 특정 사건 이후 주관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비로소 사건이 주제에게 의미화한다는 개념으로 프로이트가 제시한 용어이다. 효창공원은 효창원에서 골프장, 운동장을 거치는 등 다양한 사건을 겪은 후 우리 앞에 놓여져있다. 누군가에겐 역의 이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어떤 이에게는 마음을 짐을 느끼게 만드는 공간이다.

5 / Shadows of the Hero (2019) | Lee, Changwon 이창원

이번 전시에 출품할 작품을 구상하면서 중국에서 직접 구한 찾임으로 독립운동가의 그림자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중국 상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있었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한 지역이기도 해서 그림자의 재료로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찾임을 좁은 선반 구조 위에 한 줄 한 줄 뿌려서 그림자를 이루게 하는 작업이다. 사실 그림자는 뿌려진 찾임의 반영(reflection)으로 흐릿하게 드러난다. 찾임은 명상, 여유를 떠올리게 하는 식재료임과 동시에 세계사에서 식민지 고통의 상징이기도 한 상품이기도 하다. 작업에 등장하는 여러 그림자는 모두 안중근 의사(義士)의 동상의 그림자이다. 여러 작가에 의해 해석되고 재현된 안중근 의사의 동상들은 마치 복제되는 영웅들의 그림자 같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찾임으로 이루어진 영웅의 그림자는 바람이라도 불면 금방 흩어져 버릴 듯 위태롭게 유지된다.

6 / Why is Shame Crumbly like a Plastic Bag (2019) | Noh, Suntag 노순택

한때 일본 고등계 형사였으나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고종민(1908-1958)의 삶과 죽음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를 죽인 곳은 해방된 조국이었다. 징병으로 끌려간 일본군대를 탈출해 천신만고 끝에 광복군 장교가 되었던 장준하(1918-1975)의 삶은 잘 알려져 있으나 그 죽음의 원인은 베일에 싸인 채 오랜 시간 금기였다. 그를 죽인 곳 또한 해방된 조국이었다. 두 사람의 삶과 죽음은 다른 듯 닮았다. 임시정부의 마지막 거처였던 중경에서 두 사람의 활동반경은 잠시 겹친다.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있을까. 이 작업은 두 사람을 죽어 만나게 한다. 두 사람은 바스락거리는 비닐봉지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이어간다. 부끄러움을 고백한다. 부끄러움을 탄식한다. <어찌하여 부끄러움은 비닐봉지마냥 바스락거리는가>는 두 사람이 나누는 짧은 대화를 중심으로, 두 사람의 초상,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훈련지였던 난징 천녕사 터에 나무끼던 붉은 비닐봉지, 타력에 의한 골절이 뚜렷한 장준하의 두개골, 이등녕 선생의 마지막 거주지 벽면에 돌린 구멍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딱'과 '뚝'의 무의미한 반복처럼 보이는 문장은 두 사람의 대화 중 일부를 타벽 통보법(독립운동가 안창호와 김정림이 서대문형무소 수감 중 벽을 때려가며 나는 비밀대화법)을 사용해 재구성한 것이다.

7 / The Broken Melody for Lost Names (2019) | Hong, Buhm 흥범

대한제국 최후의 공사관인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나라를 잃고 다시 찾은 근대의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했다. 하나의 건물이지만, 일제로 인해 헐렸고 팔리고 광복 후 다시 찾아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는 그 긴 여로가 건물의 역사에 담겨 있었다. 그 수복의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알지 못하는 이름들을 끊어질 듯 연결되는 불완전한 멜로디로 표현했고 자그마하게 건물의 모양을 만들어 그 안에서 소리가 울리게 하고싶었다.

8 / The Plants of Anarchist (2019) | Won, Seoung-won 원성원

오직 자유의지로서의 독립운동을 감행했던 아나키스트들을 이름 없는 잡초에 비유하여 각자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그렸다.

9 / Ordinary Nations: United States of Vela Siu (2017 ~ 현재) | Park, Hyemin 박혜민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보통의 국가들>은 특정 그룹의 참여자들과 워크숍을 통하여 참여자 모두가 살고 싶은 국가와 국가 시스템을 구현해 보는 작업이다. 작가는 참여자들에게 이민, 교육, 산업/환경, 정치/행정, 성장/분배에 대한 5개의 질문을 제시 하였으며, 이에 대해 가장 비슷한 생각을 표현한 참여자들을 한 팀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팀들은 토론을 통하여 국가 체제와 구조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 모두가 동의하는 가상의 국가, 국기, 국가 시스템을 결정하였다. '벨라시우합중국 (United States of Vela Siu)'는 인천 지역의 13세-15세 청소년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만들어진 국가이다.

10 / Project by numbers: From Shanghai to Chongqing (2019) | Moon, Hyungmin 문형민

<Project by numbers: 상하이에서 충칭까지>는 이번 토탈미술관과 주상하이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ROADSHOW 2019 :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전시를 위해 새롭게 프로그래밍한 작업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이 전시를 위해 작업의 메인 컴퓨터는 2019년 6월 30일부터 주요 언론사의 웹사이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작가가 이번 전시를 위해 선택한 키워드 '임시정부, 김구, 안창호, 윤봉길, 이등녕, 김원봉, 김구식, 조선의용대, 광복군' 등 이 포함된 기사를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컴퓨터에 의해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사용된 횟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 10개의 단어와 순위가 정해진다. 동시에 수집된 기사의 사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10개의 색을 찾아내어 순위를 정한다. 이렇게 완성된 단어와 색채의 조합을 각 단어의 빈도수에 따라 5184개의 사각형으로 분할된 화면을 통해 보여준다. 2019년 6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1085개의 기사를 수집하였고, 기사에 사용된 35078의 단어와 975개의 사진들을 모았다.

11 / Nae-ap (2015) | Kim, Ingeun 김인근

'내일'은 전기영화로 1910년 일제에 의한 경술국치가 시작되자 안동에서 문중 별로 일어난 저항 운동을 그린 영화이다. 특히 독립군 양성을 위해 같은 해 12월 24일 중국 서간도로 떠나는 내일 마을(의성 김 씨 집성촌)의 '백하 김대락' 일가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고향에 남아서 저항한 그의 여동생 '김락' 애국자의 시선에서 그녀와 가족의 비극의 삶을 전한다.

12 / w, 3dw_series | kdk 김도균

3dw는 w 시리즈를 기반으로 3d프린터로 제작한 작품이다. w 시리즈는 움푹 들어 가 있는 모서리를 사진으로 표현할 때 3차원 공간에 대한 정보가 사라져 기하학적 구성이나 균형의 흔적만 남는 착시 현상을 탐구한다면 3dw에서는 이미 평면화 되어버린 모서리를 다시 3차원의 입체로 변환하는 작업으로 원래의 모서리가 3d-2d-3d로 바뀌는 과정을 거쳐 처음과 다른 3d의 조각으로 만들어지는 작업이다. 이번 로드쇼 전시에서는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부공간 중 집무실과 회의실의 모서리를 촬영한 5점의 w 시리즈 사진 작업(2d)을 다시 3d프린터를 이용해 조각(3d)으로 만들어 내는 작업을 하였다. 2d와 3d의 변화와 재구성을 통해 과거의 임시정부 인사들이 활동하였던 공간을 상상하고 되새겨 본다.

13 / A Nameless Monument (2019) | Kim, Siha 김시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항일역사의 흔적을 쫓아다니며 거꾸로 그렇게 해서도 마주치지 못할,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역사 속 흔적의 한 귀퉁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 거대한 역사적 운영과 사명 뒤에 그저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 항거하는 방식을 택한 알려지지 않은 '개인'에 주목한다. 그들은 그저 무명이라 불리는 이들과 그 뒤의 또다른 무명들, 본 기념비는 그런 이들을 위한 기도에서 비롯된 작업이다. 각각의 3개의 작품은 역사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한다.

14 / Icon series | Lee, Dongjae 이동재

별 오브제로 제작된 김좌진 장군의 초상은 오브제와 도상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안중근을 설명하는 문장들로 나열된 알파벳 유닛의 안중근도 형상과 언어 그리고 오브제의 상관관계를 드러냄과 동시에 시대적 아이콘을 통해 역사의식을 되새긴다. 크리스탈로 제작된 독립운동가 시리즈 - 오광삼, 정정화, 권기옥, 백초월, 동풍신, 김마리아, 홍범도, 김원봉, 김구, 한용운 - 를 통해 인물 개개인에 주목시킴과 동시에 이들의 발자취를 다시 한 번 일깨워 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15 / Film(Roadshow) (2019) | Park, Inseong 박인성

<ROADSHOW 2019 :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전시를 위해 박인성은 안동의 임청각을 찾았다.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이상룡의 집이기도 한 임청각은 영남산 동쪽 기슭에 앉아 낙동강을 바라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명당 지형에 자리잡고 있는 99칸 집이었다. 그러나 일제시대 임청각이 이상룡을 비롯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일본 관헌이 1942년 집 앞마당과 일부를 철거했고, 중앙선 기차길을 내면서 50여칸의 행락채와 부속채가 철거되는 아픔을 겪었고, 현재 복원중이다. 박인성은 자신의 고유한 작업방식을 살려 이러한 임청각의 절리고, 허물어지고, 다시금 복원되는 굴곡의 역사를 사진과 추상적인 이미지화 된 필름의 물성을 통해서 새롭게 표현했다.